대학의 敎授機能은 強化되어야 한다

李 稱 粲
(江原大 敎育學科)

大學에 요구되는 機能上의 변화

대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명으로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의 기능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독립적인 힘들이 서로 원만한 교호작용을 통하여 완전한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을 때, 대학은 그 본래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은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학 존립의 근본적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연구의 기능을 통하여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대학이 늘 새로운 힘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대학은 죽은 대학이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학에서는 저마다 각 학문 분야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교수, 연구 능력이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려고 애를 쓴다. 또한 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연구진들의 연구 권의를 위해 보다 나은 시설 및 환경을 가꾸려고 하는 것이다.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역시 연구의 기능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이 된다.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논의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학문적 추세는 실용성의 문제를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다. 학문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실용성의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Bruner(1971)를 위시한 많은 교육학자들이 Relevance의 문제라든가 Accountability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거의 경우처럼 대학도 대학대로 사회와의 관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갈 수 없다. 이와 같이 대학의 기능을 생각하자면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의 기능을 따르릴 수 없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교육인구의 증대와 교육적 인구의 대중화 현상이 눈에 나면서 이러한 대학의 기능은 그 균형을 잃어 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경우와 같이, 사회 전반의 추세가 고학력 위주의 이상 교육열로 가득차 있어서 취학적령인구의 40%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대학의 문으로 몰려드는 형편에서는 대학이 가져야 하는 본래적인 기능의 수정이 어쩔 수 없이 요구된다. 대학이 항상 추구해야 하는 학문적 탁월성(academic excellence)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이 요구하는 교육기능의 대중화 추세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우리 대학은 과거의 형편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대학의 수만 하더라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몇 배가 늘었고, 대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좀더

전문적인 비교를 해 보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한 강좌당 학생의 수도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늘어만 가는 교육인구를 교육하는 방법이나 시설 등은 개선되기보다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늘어나는 학생수에 따른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교육의 수월성 보장이나, 질적 개선은 교육계의 논의에서 언제나 수위를 차지하는 개선의 대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한없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교육적 수요를 채우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데 고충이 있는 셈이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도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기능 강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교육의 기능이란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연구의 기능이나 사회봉사의 기능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기능인 셈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학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규모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학이 가져야 하는 기능상의 변화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대학은 여전히 사회와 유리된 채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상아탑 특유의 고고로움을 간직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능상의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한다. 특별히 현대 산업사회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실제적 강화, 대학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인 개선, 즉 기본적 능력의 균등한 배분을 위한 교수기능의 강화 같은 문제들은 눈에 보이게 달라져야 하는 대학의 기능상의 변화 내용들이다. 따라서 대학이 가져야 하는 본질적 기능들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조화로운 발전은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당연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변화된 사회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강조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요즈음의 현실은 대학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만이 위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기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몇몇의 기관에서는 종래 대학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기능들을 분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은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대학의 능력을 압도해 나가기도 한다. 아마도 요즈음의 형편에서는 일부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는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연구소나 실험실보다도 일반 기업체의 부설 연구소나 정부 투자의 연구기관에서 훨씬 더 우수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우수한 연구진의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유인 체계가 그 원인이다. 또한 사회봉사의 기능면을 살펴보더라도 전문적인 자문이나 협조는 과거와 같이 대학의 전유물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어떠한 부문에서는 현실적인 안목을 가진 현장 요원들의 조언을 대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사회의 요구에 발맞춘 실제적인 대학교육의 내용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輕視되고 있는 교수기능

대학교육의 수월성 보장은 대학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다. 특별히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눈부신 우리의 형편에서는 그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발전이 병행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의 발전만이 이루어지 왔기 때문에 질 높은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질 높은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변화된 대학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대학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고전적으로 되뇌어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기능의 조화로운 발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존립의 최소한의 영역인 지식의 획득, 전달 즉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해방 직후의 대학인구에 비하여 100배 이상 늘어난 현실에서 과거와 똑같은 시설, 방법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대

학의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대학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연구들, 즉 Bayer(1973), Gatt and Wilson(1971), 그리고 Eckert and Williams(1972) 등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지적한 대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1934년 Frank Hart가 일만 명의 고등학교 상급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훌륭한 대학교수의 첫번째 조건이 바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이 외에도 Robert Blackburn (1974)의 연구를 보면 실제로 대학교수들이 소비하는 시간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대학에서의 교수기능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에 비하여 경시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수기능이란 자신의 학문적 다원성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 요인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이는 대학에서의 원로 교수들이나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교수들일수록 저학년의 대단위 강의를 기피한다거나 중요한 학술 모임을 위하여 이미 짜여진 강의 시간을 임의로 바꾸거나, 빼어버리는 경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새학기 초가 되면 어느 대학에서나 교양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교양과목들은 그 대학의 원로 교수가 맡아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강사나 또는 일부 젊은 교수들이 떠맡는 수가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인 교수계획서의 작성마저도 쓸모 없는 시간의 낭비로 치부해 버리고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을 위한 설계적인 준비보다는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도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성숙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곳에서 대학에서의 연구기능이 전혀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의 준비 없이 구태의연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게 된다면 그러한 교수기능의 강화란 더욱더 쓸모없는 시간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의미에서 교수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 대학의 선립 목적이나 교육 목적을 들여다 보면 이러이러한 인간을 양성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연구라든가 사회봉사의 기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학 존립의 근본 이념은 실제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의 개발이라는 점이 쉽게 확인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대학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어느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 중에서도 교수기능의 강화를 위한 변화는 더욱더 그러하다. Sanford (1971)의 연구를 보면 대학사회에서의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효율적인 교수 방법이나 이론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교수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배우는 학습자들의 지적 특성이나 발달 면에서의 여러 특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훌륭한 교수란 자신들의 학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화학자, 사회학자 또는 역사학자, 문학평론가로서의 역할만을 다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Popham(1974)이 지적하였듯이 가르치는 일은 대학교수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이며 교육활동은 대학의 기본적 기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알맞는 교수목표의 선정, 높은 학업성취율을 올릴 수 있는 수업방법의 선택, 적절한 평가의 기술' 등은 대학에서 학습자들을 직접 대하는 교수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될 조건이 되어야 한다. 교수들은 가르치는 일을 즐겨하며 또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사명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르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인색하며,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대학에서의 교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수의 교수들은 전혀 이러한 준비를 갖추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미 자신들은 훌륭한 그리고 지극히 효율적인 교사라고 믿고 있는 데도 문제가 있다. Cross (1977)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교수들의 94%가 자신들은 평균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교사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을 통하여 똑같은 내용의 물음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그들의 교수가 적어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는 적절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조사한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거의 한결같이 강의의 형식이나 교수의 강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과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불신 등이 이제는 보편화된 대학의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목의 특성이 어떠하든지간에 교실 속에서는 일률적인 주입식 방법만이 구사되고 있고, 학년의 다양성과는 무관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종종 듣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방법의 문제도 지적된다. 일부의 극단적인 예가 될런지는 몰라도 어느 학교의 경우 휴학을 원하는 한 학생이 의도적으로 그 학기에 수강하는 전 과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수하지도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학기말이 되어 받아든 성적 통지표에는 일부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적이 나왔고, 몇 과목의 경우에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학에서의 성적 평가라는 것이 결국은 담당교수의 주관적 판단에 치우칠 우려가 큰 것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대로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구나 종업정원제라는 엄격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 성적 평가의 객관성·공정심은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은 평가전문가에게 맡길 수밖에는 없겠지만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평가에 관한 소양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가 된다.

교수기능의 强化 방안

우리의 경우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교사 양성을 위하여서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방법과 같은 교직적 능력의 배양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는 대학교수 요원들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최소한 대학교수 요원들을 위한 표준적 교수상이나 자질 등이 무엇인지조차 추구해 보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 동안 각 전공 영역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대학교수 요원들의 연구는 황무지에 가까운 형편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고등교육이 출발을 했던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매한가지인 셈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요즈음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 보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Light(1974), Light and Marsden(1972), Hoyt(1974) 그리고 Mckeachie and Lin (1975) 등의 연구를 통하여 교수사회에서 종신교수직이나 다음 단계로의 승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교사로서의 교수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교수의 충원 과정에서 유일하게 내세워지는 임용의 요건인 학위 소지 여부보다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교수활동을 학생의 반응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승진이나 또는 재계약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학습자들에 의한 교수들의 교수활동 평가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이 문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새로운 교수의 충원 과정이나 승진 과정에서 교수들의 표준적 교수상이나 자질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현직 교수들에 대한 교수기능의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의 확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개선을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교수요원들의 실제적 경험이나 태도 등에 관한 상호 교환 또는 교수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기능의 습득을 위한 대학 자체내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수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기능이란 수없이 많겠지만, 우선 교수활동과 관련한 어휘의 구사력, 교실 속에서의 바람직한 구체적 행동의 제시 방법, 판서 방법, 교수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 특정한 내용의 수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매체의 배열, 교수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문항의 작성방법 및 그 실시 그리고 해석 및 활용방안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직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지극히 보수적인 집단의 성질을 고려하여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 조성 등이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강제적인 연수의 참여보다는 실제 가르치는 일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작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한 강좌당 수강학생의 수를 적당한 수로 제한한다든가, 대형 강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이크의 설치 또는 전담 조교의 배치 등을 고려한다든가, 자연과학 계통의 과목 이수를 위한 실험·실습 시설의 준비라든가, 더 나아가서 실험·실습의 실제적 활용을 위한 예산의 배정과 같은 대학에서의 교수활동 여건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일 등이다.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일수록 이러한 교수활동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우리의 대학 현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들,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 강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심한 경우에는 한 강좌당 학생의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단위 강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에 알맞는 강의실, 시설 그리고 교수를 도와서 교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교의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점진적인 改革

대학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교수, 연구 및 사회봉사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만히 작용할 때에 대학은 그 본래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학에서의 교육의 기능은 다른 기능에 비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고등교육 인구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수준의 저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인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에서의 교수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의 기능이나 사회봉사의 기능도 대학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이기는 하나 축적된 지식의 내용을 교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기능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대학에서의 교수기능의 강화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룰 수 없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하면서, 그 요구가 대학사회 내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변의 여건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변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보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득실을 감안한 점진적인 개혁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